

남장현의 피버피치

‘불사조’ 박지수가 겪은 판정 논란 심판들, 뼈를 깎는 노력 절실하다



원정 한·일전에 출격한 태극전사들의 코호트 격리가 끝났다. 이제 다시 K리그다. 2일부터 K리그1(1부)이 재개된다. 그런데 걱정이 크다. 판정 문제다. 이미 A매치 휴식기를 앞두고 큰 소동이 있었다. 수원FC 박지수는 3월 14일 성남FC와 4라운드 후반 38분 상대 공격수 물리치를 막다 레드카드를 받았다. 주심은 명백한 득점 기회를 저지한 행위로 판단했다. 하지만 대한축구협회 심판평가소위원회는 퇴장이 과하다고 보고 박지수를 구제해줬다. 이미 수원FC는 수적 열세 끝에 1-2로 패한 뒤였다.

비슷한 일은 또 벌어졌다. 퇴장이 취소된 박지수는 3월 17일 인천 유나이티드와 5라운드 경기에 출전했으나 경고누적으로 또 퇴장 당했다. 후반 8분 핸드볼에 이어 17분 뒤 추가 경고를 받았다. 수원FC는 결국 1-4로 패했다.

심판소위는 이번에도 주심과 다른 결정을 했다. 후반 8분 경고가 과하다고 봤다. 수원FC는 억울했지만, 승패는 이미 ‘엮일라진 물’과 같은 상황이었다.

협회가 한국프로축구연맹을 대신해 지난해부터 K리그 심판 운영 권한을 행사하고 있지만, 판정 논란은 여전하다. 구단들은 심판을 신뢰하지 않는다. 홈팀이든 원정팀이든 “아무게 주심이니 오늘은 비기기만 해도 운수 좋은 날”이라고 공공연히 말하거나, “흠 어드벤처는 바라지도 않는다. 그냥 50대50으로 봐주면 좋겠다”고 우려하는 일도 적지 않다.

주판적 의견일 수 있겠지만, 석연찮은 판정과 심판 때문에 흐름이 바뀌는 경기가 늘고 있다. 공정한 판정을 위한 뼈를 깎는 노력이 절실한 요즘이다.

교육부터 철저히 해야 한다. 매년 수차례 심판교육과 세미나를 연다는데 실력은 퇴보한 듯하다. 박지수에 대한 판정은 비디오판독(VAR)까지 거친 뒤 이뤄져 더 충격적이다. VAR 담당 심판에 대한 불신도 해소해야 한다.

구단들과 소통방식도 개선해야 한다. 고위층간 전화 한 통으로 마무리될 일이 아니다. 담당자들을 불러 명확히 상황을 설명하고 사과하는 일은 정력낭비가 아니다. 협회는 지난해 주요 오심에 대해 시행했던 심판 브리핑조차 올해는 생략했다. 소통의지가 없어 보인다.

당장에 심판의 자질을 높일 수 없다면 시스템 변경도 고려해야 한다. 심판소위를 최소화한 다음 경기 이틀 전까지는 마무리하고, 각 팀 벤치가 경기 중 한 번은 직접 VAR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죽었다가 살아나고, 또 죽어서 부활하는 ‘불사조’ 박지수와 같은 일을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

yoshike3@donga.com

감정의 골 깊어진 수원삼성-전북, 내일 한 판 붙는다

‘백승호 매치’...빅버드는 전쟁터!

전북, 백승호 선수등록 마무리
수원 10억원대 손해배상 요구
과거에도 염기훈 놓고 감정싸움

백승호(24)의 행선지는 K리그1(1부) 전북 현대로 결정됐다. 전북은 3월 30일 다름슈타트(독일 2부)에서 돌아온 백승호의 영입을 발표했고,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일 백승호의 선수 등록이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단, 논란은 계속된다. 과거 FC바르셀로나(스페인) 유학 당시 3년간 3억 원을 지원받으며 작성한 ‘K리그 진입 시, 조건·시기·형태를 불문하고 꼭 수원에 입단한다’는 합의를 선수가 불이행했다며 수원 삼성은 반발하고 있다.

수원은 지원금 3억 원 반납과 범정이자율(5%)을 적용한 1억2000만 원, 전북이 다름슈타트에 지급한 이적료(75만~80만 유로 추정)에 해당하는 10억 원대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백승호측이 염두에 둔 액수(3억 원)와 큰 차이가 있어 진통이 불가피하다.

전북과 수원의 감도도 폭발 직전에 다다랐다. 서로를 인정하던 그렇지 않던 라이벌의식, 뿌리 깊은 적개심은 ‘백승호 사태’로 더욱 강해졌다.

두 팀은 과거에도 선수영입을 놓고 거듭 충돌했고, 양상은 시기에 따른 팀 위상



김상식 감독(왼쪽)이 이끄는 전북 현대와 박건하 감독(오른쪽)의 수원 삼성은 3일 맞대결을 펼친다. 두 팀은 최근 백승호 관련 이슈로 감정의 골이 깊어진 상태다. 사진제공 | 한국프로축구연맹

대로 전개됐다. 전북 출신 염기훈은 2007년 울산 현대를 거쳐 2010년 수원으로 향했고, 성남 일화(현 성남FC) 정성룡(가와사키 프론타레)도 양 구단의 영입 경쟁 끝에 2011년 수원에 입단했다. 반면 에두(브라질), 손준호(상동 루닝)는 차례로 전주성에 입성했다.

‘전북 르네상스’를 일군 최강희 감독(상하이 선화)도 빼놓을 수 없다. 수원 코치로 일하다 김호 감독과 갈등으로 떠난 그는 2005년 여름 전북 지휘봉을 잡은 뒤 “수원에 패할 일은 없다”고 단언하기도 했다.

공교롭게도 두 팀이 3일 빅버드(수원월드컵경기장 애칭)에서 열릴 ‘하나원큐 K리그1 2021’ 7라운드에서 격돌한다. 김상식 감독의 전북은 4승2무, 승점 14로 선두에 올라있다. 박건하 감독의 수원은 3승2무1패, 승점 11로 4위다. 통산 상대전적에선 전북이 31승23무30패로 근교하게 앞서있다.

전북으로서도, 수원으로서도 이날 대결은 ‘총성 없는 전쟁’이다. 분위기는 좋다. A매치 휴식기를 국가대표 차출 없이 보낸 전북은 불안정했던 페이스를 되살렸고, 모처럼 상승세의 시즌 초반부를 보내고 있는 수원에 맞선 FC서울과 ‘슈퍼매치’ 역전패의 아픔을 씻었다. 무승부도 실패로 비쳐질 긴장 가득할 ‘빅버드 혈투’에 모든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남장현 기자 yoshike3@donga.com

음주운전 강수일 복귀·데이트폭력 료헤이 K리그행...이래도 돼?

스토리 사커

강수일(34)이 6년 만에 K리그에 복귀했다. K리그2(2부) 안산 그리너스는 “강수일이 연습경기 등을 통해 좋은 평가를 받아 영입하게 됐다”고 3월 31일 발표했다.

알려진 대로 강수일은 2015년 도핑 파문에 이어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켰다. 다문화가정 출신인 그는 2007년 인천 유나이티드를 통해 프로에 데뷔한 뒤 제주 유나이티드~포항 스틸러스~제주를 거치며 9시즌 동안 185경기에서 27골·14도움을 기록했고, 한때 국가대표에 선발될 정도로 기량을 인정받았다. 하지만 2015년 6월 도핑테스트에서 금지약물이 검출됐고, 그 해 8월 음주운전으로 K리그를 떠나야 했다.



해외로 눈을 돌린 그는 일본과 태국에서 뛰었다. 그러다 올해 초 원 소속구단인 제주가 임의탈퇴를 철회하면서 복귀가 가능해졌다. 광주FC와 강원FC에서 입단 테스트를 받았지만 모두 실패했고, 결국 안산을 통해 K리그에 복귀했다.

안산 구단은 팬들의 싸늘한 시선을 의식한 듯 “강수일이 자숙하는 동안 다문화 가정 및 불우아동을 남몰래 도우며 오랫동안 봉사활동을 해왔다”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영입했다”고 덧붙였다.

음주운전과 금지약물로 물의를 빚은 선수가 꿈과 희망의 무대인 K리그에 설 수 있다는 사실이 의아스럽지만, 규정상 강수일의 등록에는 문제가 없다. 금지약물과 관련하여 2년의 자격정지 기간이 지났다. 또 음주운전에 대한 10경기 출장정지와 제재금 500만 원이 부과됐는데, 선수자격이 갖춰진 뒤부터 10경기 동안 경기에 나서지 않으면 되고, 제재금은 납부했다.

이미 찻값을 치른 선수의 등록을 막을 순 없겠지만, 이번 건은 분명 나쁜 신호를 줄 수 있어 걱정이다. 물의를 일으켜도 반성만 하면 누구나 복귀할 수 있다는 나쁜 선례를 남겼다. 아울러 갈수록 엄격해지는 사회적 잣대에 K리그만 너무 동떨어진 것이 아니냐는 따가운 시선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충남아산의 일본 출신 료헤이(27)에 대

한 논란도 궤를 같이 한다. J리그에서 데이트 폭력으로 퇴출된 그가 어떻게 K리그에 등록할 수 있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법적 처벌이 없어 선수등록은 가능하지만, 최근 학교폭력으로 시끄러운 우리 사회 분위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이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게 K리그가 적극 나서야 한다. 우선 금지약물과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수위를 과감히 높여야 한다. 현 규정에는 혈중알콜농도가 면허 취소처분 기준에 해당할 경우 15~25경기 출장정지와 800만 원 이상의 제재금이 부과되는데, 솜방망이다. 한 번 잘못으로도 선수인생이 끝난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고강도 징계와 함께 무관용의 원칙을 철저히 견지해야 한다.

또 K리그 구성원들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당사 선수가 필요하다고 해서 과거의 잘못을 덮어버려선 안된다. 운동만 잘하면 모든 게 용서되던 그런 시대는 지났다. 성적 앞에 상식이 무너져선 곤란하지 않을까.

최현길 기자 choing2@donga.com

sports2i 스포츠투아와 함께하는 스포츠기록실

경기 결과

프로농구 (31일)

•2020-2021 현대모비스 KBL 팀순위

순위	팀	경기	승	패	승률	승차	연속
1	KCC	51	35	16	0.686	0	2승
2	현대모비스	51	31	20	0.608	4	1패
3	인삼공사	51	28	23	0.549	7	1패
4	오리온	51	27	24	0.529	8	4패
5	KT	51	25	26	0.490	10	1패
6	전차랜드	51	25	26	0.490	10	1패
7	삼성	52	23	29	0.442	12.5	1패
8	SK	51	22	29	0.431	13	1승
9	DB	52	22	30	0.423	13.5	2승
10	LG	51	18	33	0.353	17	2패

프로배구 (31일)

•도드람 2020-2021 V-리그 남자부 팀순위

순위	팀	경기	승	패	승점	득점	실점	연속
1	대한항공	35	25	10	73	3278	3026	5승
2	우리카드	35	22	13	64	3092	2979	1패
3	KB손해보험	36	19	17	58	3186	3195	2패
4	OK금융그룹	35	19	16	55	3235	3246	1승
5	한국전력	35	18	17	55	3292	3240	1승
6	현대캐피탈	36	15	21	41	3156	3268	1승
7	삼성화재	36	6	30	26	2991	3276	2패

NBA (1일)

•경기결과

피닉스 121-116	시카고	달러스 113-108	보스턴
유타 111-107	멤피스	밀워키 112-97	LAL
포틀랜드 124-101	디트로이트	마이애미 92-87	인디애나
미네소타 102-101	뉴욕	브루클린 120-108	휴스턴
샌안토니오 120-106	세크라멘토	오클라호마 113-103	토론토

NHL (1일)

•경기결과

버펄로 6-1	필라델피아	토론토 3-1	워싱턴
콜로라도 9-3	애리조나	LA 4-2	베가스
새너제이 4-2	미네소타		

아마추어 경기결과 (1일)

농구 ●제 58회 춘계 전국 남녀 중고농구연맹전 해남대회(해남)
 ●여자 고등부 B조=화봉고 78-69 선일여고 ●남자 중등부 B조=임호중 63-62 문화중 ●남자 중등부 C조=홍대부중 88-59 제주동중 ●남자 중등부 D조=군산중 67-52 여천중 ●남자 중등부 F조=전주남중 80-79 안남중
 ●여자 중등부 A조=속명여중 80-67 선일여중, 승의여중 72-52 효성중
 ●여자 중등부 B조=온양여중 40-37 청주여중

경기 예고

주말 프로야구

•2021 신한은행 SOL KBO리그

오후2시, SBS TV	KIA (잠실)	두산	롯데 (인천)	SSG
오후2시, KBS2 TV	LG (창원)	NC	한화 (수원)	KT
오후2시, MBC 스포츠, MBC 스포츠플러스	삼성 (고척)	키움		
오후2시, MBC TV	KIA (잠실)	두산	롯데 (인천)	SSG
오후2시, KBS2 스포츠	LG (창원)	NC	한화 (수원)	KT
오후2시, SBS 스포츠	삼성 (고척)	키움		
오후2시, SPOTV2				

주말 프로배구

•도드람 2020-2021 V-리그 남자부

2일	우리카드 (정충체육관)	한국전력
4일	정규3위 (준PO·정규3위홈)	정규4위

주말 프로축구

•하나원큐 K리그1 2021 (7라운드)

2일	포항 (포항)	대구
오후7시30분, 스카이스포츠	수원 (수원W)	전북 (탄천종합)
오후2시, 스카이스포츠	서울 (서울W)	강원
오후7시, JTBC G&S	수원FC (수원종합)	제주
오후2시, KBS2 스포츠	광주 (광주전용)	인천
오후4시30분, JTBC G&S		

주말 프로농구

•2020-2021 현대모비스 KBL

2일	현대모비스 (울산동천) 인삼공사	DB (원주종합) KCC	전차랜드 (인천삼산) LG
오후7시, SPOTV2, SPOTV ON	오후3시, SPOTV G&H, SPOTV ON2	오후5시, SPOTV2, SPOTV ON	
3일	SK (잠실학생) 오리온	현대모비스 (울산동천) 삼성	KCC (전주실내) KT
오후5시, SPOTV G&H, SPOTV ON2	오후3시, SPOTV NOW, SPOTV ON2	오후3시, SPOTV NOW, SPOTV ON	
4일	SK (잠실학생) LG	오리온 (고양실내) 인삼공사	
오후5시, SPOTV G&H, SPOTV ON2	오후5시, SPOTV2, SPOTV ON		